

여수 밤바다 수놓은 세계 최초 섬 박람회의 화려한 서막

읍·면·동부터 도서지역까지 11회 방문… 시민 고충 현장에서 듣는다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9월 5일 오전 10시 개장식에 이어 오후 6시 30분 주행사장 열린무대에서 화려한 개막식을 열고 세계 섬 축제의 막을 올렸다.

이날 개막식에만 내빈과 국내외 관람객 등 5천여 명이 참석해 여수 밤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진 다채로운 공연과 퍼포먼스를 함께하며 축제의 시작을 뜨겁게 달궜다.

개막식은 '섬의 흐름'(식전행사), '섬의 개방'(공식행사), '섬의 서사'(주제공연·세리머니), '섬의 확장'(축하공연) 등 4부로 나눠 진행됐다. 각 순서마다 전통공연과 영상, 주제공연, 퍼포먼스 등을 배치해 박람회의 주제와 의미를 입체적으로 전달했다.

식전행사에서는 여수시립국악단이 공연을 선보이며 개막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이어 공식행사에

서는 개막 오프닝 영상과 행사 안내를 시작으로 여수시립국악단의 '거문도 뱃노래', 여수시립합창단의 박람회 주제곡 '너란 섬' 공연이 차례로 펼쳐졌다. 국내외 주요 인사들의 축하 메시지 영상도 상영되며 세계 섬 축제의 시작을 함께 축하했다.

개막식의 열기는 '시카고', '맘마미아!' 등 국내 대표 뮤지컬 흥행작을 이끌어온 박명성 총감독이 연출한 주제공연에서 한층 고조됐다.

여수에 전해 내려오는 인어 설화 '신지끼'를 모티브로 한 창작뮤지컬 '신지끼: 마지막 인어'가 무대에 올라 섬과 바다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냈다. 공연에 이어 섬지역 청년과 학생, 해녀·어업인 후계자, 다문화이주민 등 시민 대표와 내빈이 함께 하는 개막 세리머니가 펼쳐졌다.

개막식에 참여한 섬박람회 명예 홍보대사 김서아 씨는 "뮤지컬 '신지끼: 마지막 인어'를 보면서 바다

가 신비롭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연을 소중히 해야겠다는 다짐도 했다"며 "개막 공연을 보고 나니 섬박람회에 대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라이팅 드론 퍼포먼스가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으며 개막식의 분위기를 절정으로 끌어올렸다. 개막식 프로그램은 주제공연 25분에 이어 개막 세리머니와 드론 퍼포먼스로 이어지도록 구성됐다.

밤하늘을 수놓은 빛의 퍼포먼스는 여수의 섬과 바다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개막식의 화려한 대미를 장식했고, 관람객들은 눈앞에 펼쳐진 장관에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한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여수 돌산 진모지구, 여수세계박람회장, 개도·금오도 일원에서 열린다.

/이유빈 기자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막식이 열린무대에서 성황리에 열리고 있다.

/여수 시청 제공

순천시, 순천만천문대에서 별 보며 밤새볼까?

순천시(시장 순홍모)는 순천만천문대에서 상시 운영 중인 '쫄쫄 새워 내 별 찾기(쫄쫄별)'와 '밤 새워 내 별 찾기(밤별)' 프로그램을 오는 10월까지 지원사업과 연계해 더욱 풍성한 내용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순천만천문대가 '2026년 호남권 과학관 과학문화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기존 천체관측 프로그램에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더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천문과학을 보다 깊이 있게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매달 특별한 날 한 차례 운영되는 '쫄쫄별'은 이름 그대로 밤을 '쫄쫄' 새우며 별을 찾아보는 순천만천문대의 대표 심화 프로그램이다. 토요일 늦은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지며, 시간대별로 달라지는 밤하늘을 관찰하고 천체망원경을 직접 조작해 별과 행성을 찾아보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이유빈 기자

광양시, 2026년 미혼남녀 만남행사 「설렘 N 광양」 참가자 모집

광양시(시장 박성현)는 바쁜 일상 속에서 이성을 만날 기회가 부족한 미혼남녀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결혼과 가족의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미혼남녀 만남행사 「설렘 N 광양」을 추진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설렘 N 광양」은 미혼남녀가 단순한 만남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 간 친밀감을 높이고 자연스러운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참가자들이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부담을 줄이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의 관심사와 가치관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해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1그룹은 10월 17일(토), 2그룹은 10월 31일(토)에 각각 개최된다. 신청기간은 9월 9일(수)부터 9월 28일(월)까지이며, 그룹별 남녀 각각 20명씩 총 80명을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1그룹은 27세 이상 35세 이하인 미혼남녀(1991년~1999년), 2그룹은 31세 이상 39세 이하인 미혼남녀(1987년~1995년)로, 공공기관·기업체 근무자 또는 사업자이다. 남성의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를 광양시에 두어야 하며, 여성의 경우 제한 사항은 없다. 세부 신청자격과 제출서류 등은 광양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미혼남녀에게 자연스러운 만남과 인연을 맺을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유빈 기자

추석엔 곡성愛 고향사랑! 곡성군, 추석맞이 특별 이벤트 추진

곡성군이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곡성을 응원해 준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특별한 고향사랑기부 이벤트에 나선다.

이번 행사는 9월 4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며,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하는 기부자들이 풍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됐다. 답례품 증량과 경품 추첨 등 두 가지 이벤트로 구성해 기부의 즐거움도 더할 예정이다.

첫 번째는 '인기 답례품 추가 증정 이벤트'이다. 기부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답례품을 중심으로 기존 구성에 추가 수량을 더해 제공한다.

대표적인 품목으로는 ▲곡성축협 한돈·흑돼지 ▲옥과맛있는김치 전라도 김치 ▲옥과농협 냉동참출수수 ▲석곡농협 백세미 유기농 오본

도 즉석밥 ▲진향건강원 토마토주스·ABC주스 ▲썬새벽 자포니아 민물장어 ▲바라미 발아현미 ▲가시버시농원 곡성 심청배 등이 있다.

두 번째는 '네이버페이 경품 추첨 이벤트'이다. 행사 기간 중 10만 원 이상 기부한 사람 가운데 2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네이버페이 1만 원권을 증정한다. 별도의 응모 절차 없이 조건을 충족한 기부자는 자동으로 추첨 대상이 되며, 기부와 함께 추가적인 행운의 기회도 누릴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을 곡성에 전하고, 기부자분들에게는 곡성의 좋은 답례품을 더욱 풍성하게 드리고자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라며 "많은 분들이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해 곡성을 응원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일규 기자

구례군, 자기혈관 숫자알기...'레드서클 캠페인' 실시

오는 7일까지 '자기혈관 숫자알기'라는 주제로 실시되는 이번 캠페인은 5일시장에서 건강 상담 및 혈압·혈당 수치 측정, 보건사업 안내 등이 다.

심뇌혈관질환은 단일 질환으로 압과 함께 국내 사망원인 1위로 위험한 질병이지만 선형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의 적정 관리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80%는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오는 5일과 24일에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 및 심방세동 검사를 실시하고 17일에는 통합보건 합동 캠페인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련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심뇌혈관질환 예방은 자기 혈관 수치를 바로 알고, 올바른 생활 습관 실천과 지속적

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군민들이 자신의 혈압·혈당 수치를 확인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건강 상담과 함께 혈압·혈당 측정, 보건사업 안내 등을 진행해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과 심방세동 검사를 통해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의료원은 군민들이 평소 자신의 건강 수치를 확인하고 올바른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예방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심선섭 기자

NAJU

우리농가를 살리는 착한 소비!

오색마을

[나주시 쇼핑물]